

##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치료환경의 세계적 추이" 국제학술심포지엄

### World Current Trend in Healthcare Environment

최 광 석\*  
Choi, Kwang-Seok

사단법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와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가 2002년 5월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치료환경의 세계적 추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의료의 기능이 외래중심과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정보통신이 의료자원의 분산과 의료와 생활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므로써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공간에도 치유환경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제로 한국, 일본, 미국, 독일에서 활동 중인 건축학, 실내건축학, 의학, 심리학, 간호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치유공간의 세계적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 뜻 깊은 행사였다.

학술발표 행사는 크게 4부로 나뉘어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패널토의, 그리고 4부는 저녁 부패와 자유토론회로 진행되었다.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발표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이정만 교수의 사회로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개회식에는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이특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진경 연세대학교 의무부 총장의 격려사와 대한건축학회 김진균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이연숙 교수의 발제강연이 이어졌다. 발제강연은 "병원의 경계를 넘어서" 의료의 개념이 도입된 건강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개념의 주거 디자인이 행사 당일 행사장 로비에 전시되었다.

이어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는데, 일본 카메다 메디칼센터 John Wocher부사장이 "치유환경의 세계적인 추세와 일본의 경험 및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의 의료 및 의료시설의 동향과 카메다 메디칼 센터에 구축된 치유환경의 디자인 사례가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발표자로서 대불대학교 건축공학과 최광석 교수가 "한국의 병원건축과 치유환경의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의료 환경의 변화 동향과 함께 병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조건, 그리고 각 치유조건에 필요한 환경디자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미국발표자로서 JSR Associates의 Jane Rohde 대표가 "의료 환경의 현재 동향과 미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 병원전문 실내건축가로 활동 중인 Antje Monz교수의 "의료 환경의 국제적 경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Monz교수는 이 발표에서 광범위한 치유환경의 조건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으며, 특히 감정이 질병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신경학(PNI)분야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한 소개가 흥미로웠다.

3부 패널토의는 오후 3시10분부터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영민 교수의 사회로 6명의 패널 토의자가 "한국의 치유환경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첫 번째 패널 토의자인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이정희 교수는 "의료계에서 본 치유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치유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는 "치유환경의 발전을 위한 건축계의 역할"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최령 교수는 "치유환경 발전을 위한 주거환경학계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했던 Antje Monz교수의 부군인 Johan Monz교수는 "치유환경 발전을 위한 실내건축계의 역할"에 대하여 각기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양내원 교수는 "병원건축가의 시각에서 본 치유환경"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4부 자유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삼성관 최이순 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간단히 저녁부패를 마친 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박재승 교수의 사회로 "의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되었다. 주 토의자는 삼성의료원 간호부 파트장인 김덕희 박사, 구간건축 정현화 박사, 호서대학교 김경숙 교수가 참여하였고, 김광문 의료복지시설학회 전 회장을 포함해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대다수 참여하여 늦은 시간까지 토론의 열기가 가득하였다.